

2024년 1월 28일. January 28, 2024  
금문교회 주일예배. GGPC Sunday Worship  
조은석 목사. Rev. Eun Suk Cho, Pastor

목회기도. Pastoral Prayer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1. Seeing the crowds, he went up on the mountain, and when he sat down, his disciples came to him.

2. And he opened his mouth and taught them, saying: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마태복음 Matthew 5:1-3

만복의 근원 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2024년 1월의 마지막 주일예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옵나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영원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허락하신 그 모든 복을 누리며, 감사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온 천하에 모든 족속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복 있는 사람은

Blessed Is the Man

시편 Psalm 1:1-6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s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s in the seat of scoffers;

2.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b]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that yields its fruit in its season, and its leaf does not wither. In all that he does, he prospers.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The wicked are not so, but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drives away.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congregation of the righteous;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새 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기독교는 기복종교가 맞습니다. 구약에도 복, 신약에도 복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편 1편이 구약의 대표 하나요, 예수님의 산상수훈 8복이 신약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그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보다는 천국에 초점이 잡혀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복과 다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의 길을 밝혀 보여줍니다.

1. 세상으로부터 성별되어 하나님 편에 선 자입니다.
2. 말씀을 즐거워하고 밤과 낮으로 묵상합니다.
3. 그 말씀대로 결실하여 풍성합니다.
4.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복을 가지고 자기와 그의 가정이 잘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섬기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그러나 소금처럼 빛처럼, 그들은 온 세상을 향하여 참 중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합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 명보다는 두 명이, 세 명보다는 네 명이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숫자놀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복 없이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이 그 수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Blessed is the man who walks not in the counsel of the wicked, nor stands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s in the seat of scoffers;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 살 때, 그 지혜(counsel)와, 그 길(way)과, 그 자리(seat)가 성별(separated)된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 the counsel of the wicked  
죄인들의 길. the way of sinners  
오만한 자들의 자리. the seat of scoffers

꾀. 길. 자리. 이런 데를 다 피하는 것입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깔려있습니다.

2. 오직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but his delight is in the law[b] of the Lord, and on his law he meditates day and night.

그 대신,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이 아니라 여호와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기쁨이 거기 있습니다. 사람은 기쁨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뻐하는가, 그게 인생길을

갈라놓습니다.

또한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합니다.

여기서 "묵상하다"는 동사는 히브리어 "하가흐"입니다. 이것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즐거움에 겨운 목소리입니다. 흥에 겨운 춤과 노래를 떠올려 보십시오.

보통 묵상기도(meditation prayer), 그러는데, 그때 소리를 낼 것인가, 말 것인가? 대답은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는 소리는 "나를 지배"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을 때, 그 명령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hagah),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hagah) on it day and night, so that you may be careful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여호수아 Joshua 1:8

젊은 여호수아가 60만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은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중얼중얼, 율법을 소리 내어 묵상했습니다. 그에게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기쁨의 샘에 모이는 법입니다. 상처를 입고는 각자 제 길로 가지만.

그리고 그 율법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 곧 "하가흐" 하는 것입니다.

여기 "평탄"하고 "형통"하다는 것은 곧 "복 받는 길"입니다. 사람은 복이 있으면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한 것입니다.

하가흐의 그 명사형은 "히가욘"(hyggayon)입니다. 히가욘은 시편에서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1. 시편 9:17에서 히가욘은 묵상의 내용(contents)입니다. 그것은 율법(the Law)입니다.
2. 시편 92:4에서 히가욘은 묵상의 멜로디(melody)입니다. 음악소리(musical sound)를 내는 것입니다.

이 둘을 조화롭게 합하면, 시편 1편의 동사 "하가흐"는 "율법의 말씀을 멜로디로써 드러냄"(to reveal the words of the Law with melody)입니다. 아름답고(beauty) 묘하며(wonder), 기쁘고(delight) 놀라운(surprising) 그 말씀의 노래(the song of the Word)!!

나는 말씀을 가사로 삼고, 그에 잘 어울리는, 걸맞는 운율과 곡조를 갖다 대어 노래하거나 연주하는 그리스도인이 좋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아이든 어미든.

구약의 율법은 613가지. 이를 열 가지로 줄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것을 둘로 줄이면, 1.

하나님 사랑, 그리고 2. 인간 사랑입니다. 물론 하나로 줄이면 "사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히가욘(hyggayon)은 "사랑노래"(song of love)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찬양하고, 인간 사랑을 노래합니다. 분명한 것은 몸에서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뚜렷하고 힘이 넘치며, 악한 계획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음성입니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He is like a tree planted by streams of water that yields its fruit in its season, and its leaf does not wither. In all that he does, he prospers.

열매. 형통. 멋진 일입니다.

4.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The wicked are not so, but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drives away.

그러나 보십시오. 악인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 뿌리가 뽑히고, 그 자리에 흔적도 남기지 않습니다. 기억되지 못합니다. 잊혀지고 맙니다.

5.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Therefore the wicked will not stand in the judgment, nor sinners in the congregation of the righteous;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십니다.

의인들이 죄인의 궤, 길, 자리를 박차고 떠났습니다. 죄인들도 의인들과 동무할 수가 없는데, 그들은 의인들의 모임을 엿볼 수가 없습니다.

6.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for the Lord knows the way of the righteous, but the way of the wicked will perish.

인정. 알아주심입니다. 히브리어 "야다"(yada)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알아줌"입니다.

관포지교(管鮑之交, Damon and Pythias Friendship)가 있습니다.

관중과 포숙의 우정을 말합니다. 포숙이 죽은 후, 관중이 말했습니다. "나를 낳은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알아준 이는 포숙이었다."

다몬과 피티아스는 피타고라스의 제자였습니다. 함께 시라큐스로 여행 갔다가, 피티아스가 폭군 디오니소스에게 누명을 쓰고 사형 당하게 됩니다. 모친을 만나고 오겠다는 피티아스를 위해 다몬이 대신 잡혀 있기로 했습니다. 다몬은 친구 피티아스를 위해서는 목숨도 줄 요량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알아주십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를 살려내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거면 다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시는데!

결론입니다.

아브라함은 복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Now the Lord said[a] to Abram, “Go from your country[b] and your kindred and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that I will show you.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And I will make of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so that you will be a blessing.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him who dishonor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창세기 Genesis 12:1-3

이후 아브라함의 인생은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복 받은 사람이라는 놀라운 자기인식을 할 때, 그는 확연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보통은 재산이나 건강, 혹은 인기, 아니면 학벌, 그런 것이 높은 자존감을 지켜줍니다. 그러나 “복”이 궁극적으로 인간을 높여주는 법입니다. 상황에 따르지 않고.

하박국 선지자는 환경이 열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그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고 선포했습니다.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God, the LORD, is my strength. He makes my feet like the deer’s. He makes me tread on my high places.

하박국 Habakkuk 3:19a

복 있는 사람은!

이 말을 들을 때부터, “아, 저 말은 지금 나를 대고 하는 말이야!” 이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당당하고 담대합니다. 지혜롭고, 할 말을 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다.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

이보다 더 강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밤과 낮에 묵상(헝가온)하는 삶입니다.

신명기 6:4-9, 세마입니다.

4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the Lord is one.[b] 5 You shall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ght. 6 And these words that I command you today shall be on your heart. 7 You shall teach them diligently to your children, and shall talk of them when you sit in your house, and when you walk by the way, and when you lie down,

and when you rise. 8 You shall bind them as a sign on your hand, and they shall be as frontlets between your eyes. 9 You shall write them on the doorposts of your house and on your gates.

Deuteronomy 6:4-9

말씀묵상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을 실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주차장이었습니다. 찬송가를 부르며 걷는데, 세상 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이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상합니다. 비정상인데, 그게 정상입니다. 복 없는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칙이 그러합니다.

기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날마다 실천하는 중에, 이 복된 길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